

# 양촌선생 “주역천건록” 해제

이 광 호 (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 시설(詩說)

1

내가 생각하건대 ‘주남(周男)’과 ‘소남(召南)’은 문왕(文王)의 시대, 즉 주(周)가 아직 천하를 소유하지 않았을 때 지어진 것이다. 주자(朱子)의 ‘시경집전(詩經集傳)’에서 ‘선왕(先王)’ 또는 ‘천자(天子)’라고 칭한 것은, 시가 비록 문왕의 시대에 지어졌지만 이 시를 채집하여 관악가와 현악가에 올려 연주한 일은 무왕(武王)이 천하를 소유한 후, 즉周公(周公)이 예악(禮樂)을 제작한 때에 있었기 때문이다.

주공이 방중지악(房中之樂)을 확대해서 향당방국(嚮堂邦國)에 퍼지게 한 것은, 선조들의 덕을 세상에 알리고, 후세에 모범이 되며, 또한 주 왕실이 천하를 소유하게 된 근본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주남’과 ‘소남’을 ‘아(雅)’로 삼지 않고 ‘풍(風)’으로 삼았는데 이들 시가 지어진 문왕의 시대가 감히 순수하게 천자의 시대가 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삼가고 엄격하기가 지극하다. 공자가 “문왕은 천하의 삼분의 이를 차지하고도 복종하여 은(殷)을 섬겼으니 주의 덕은 지극한 덕이다”라고 하였으니, ‘주남’과 ‘소남’을 ‘풍’으로 삼고 ‘아’로 삼지 않은 데서 문왕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

<관자(關雎)>에서 “자나깨나 생각하고 그리워하여”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뒤적인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거문고와 비파로 친히 하도다”와 “종과 북으로 즐겁게 하도다”를 나중에 말한 것은, 애달픈 것을 앞에 하고 즐거운 것을 뒤에 한 것이다. 공자가 “<관자>는 나이불음, 애이불상(樂而不淫, 哀而不像) : 즐거워하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애달프면서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이라고 하여 즐거움을 먼저 말하고 애달픔을 뒤에 말하였는데 어째서인가? 궁중의 사람들이 태사(太師)가 문왕의 부인이 된 것을 보고, 기쁘고 즐거워하여 높이고 받들며 이 시를 지었지만, 태사를 얻지 못했을 때의 근심하고 걱정하던 마음을 추술(追述)한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관자>의 뜻은 오로지

즐거움에 있으나 그 말 자체는 대상과 주체가 있으니. 공자는 시를 지은 뜻에 근본을 두고 말한 것이다.

이 시는 궁중 사람인 첩실들에 의하여 <관자>는 집안을 바로잡는 시작을, <갈담(葛覃)>·<권이(卷耳)>·<규목(樛木)>은 집안을 편안히 하는 일을, <중사(鵲斯)>는 집안이 다스려진 지극한 효과를 읊은 것으로, 북과 경사가 자손에 이른 것이다.<도요(桃夭)>는 나라가 다스려진 일을, <토저(兔置)>는 나라가 이미 다스려져 어진 인제가 많음을 읊은 것이다.<부이(采芣苢)>는 나라가 다스려짐의 극치를 읊은 것으로, 집안이 화평하고 부인이 일이 없어 서로 함께 그 하는 일을 노래하여 가슴 속의 즐거움을 형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문왕을 찬미하는 한 터럭의 말도 있다. 문왕이 펼친 덕화의 위대함, 이른바 “왕도를 행하는 지도자의 백성들은 느긋하니 흡족하여 누가 그렇게 만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을 더욱 알 수 있다.

<한광(蕢黃)>·<여분(女嬃)>은 남쪽 나라의 시로 첨부되었다. 천하는 이미 차츰 차츰 평화롭게 되어 간다. 예컨대 <인지지(麟趾)>는 왕도를 행하는 정치에서 상서로운 조짐이 감응해서 나타난 것이다. 즉 제가치국평천하(齊家治國平天下)의 지극한 효과이니 여기에 더 보탬이 없다.

지어졌는데, 그들이 아직 태사를 얻지 못하였을 때는 그 애달픔이 절실하기가 저와 같으며, 이미 태사를 얻고 나서는 그 즐거움이 깊기가 또한 이와 같다.

여자란 아름답고 추하고를 떠나서 궁중에 들어오면 질투를 드러내는 것이 상정(常情)이다. 그러나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질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직 훌륭한 덕을 갖춘 여인이 군자의 배필이 되어 안살림을 잘 하기를 바랐으니, 그 애달픔과 즐거움이 모두 숙녀다운 한 터럭의 사사로운 마음이 없다.

그런 까닭으로 애달픔이 비록 절실하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이르지 않았으며, 즐거움이 비록 대단하나 지나친 데 이르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하늘의 이치와 인간 윤리의 지극함이다. 문왕이 집안을 바로잡은 교화는 태사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훗날 시를 말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태사만을 찬미하고 문왕에게서 그 근본을 찾지 않는 데, 이것은 또한 이를 잘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4

<관자>에서 ‘숙녀(淑女)’를 다만 ‘군자호구(君子好逑:군자의 좋은 짝)’라고 하였으니, 짝을 높여 몸체를 가지런히 할 뿐이다. <토저>에서 ‘무부(武夫)’를 “공후호구(公侯好仇:공후의 좋은 짝)”또는 “공후복심(公侯腹心:공후의 심복)”이라고 하였다. 이는 착한 사람을 심복으로 삼은 것이니, 다만 좋은 짝만 되는 것은 아니다. 문왕이 덕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여색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문왕의 마음을 진실로 알고 있다.

5

‘주남’의 시는 부인(婦人)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 많다. <관자>에서는 궁중에 있는 첩실들의 성정이 바른 것을 볼 수 있으며, <갈담>과 <권이>는 후비가 자작한 것이고, <규목>과 <중사>는 여러 첩실이 후비의 덕을 찬미한 것이다. 이들 모두 문왕의 교화를 직접 입어, 보고 느낀 가운데서 지어진 것이다. <부이>에서는 다만 일국(一國)이 모두 봄바람의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컨대 저 <여분>은 부인이 멀리 남쪽 지방의 나라에 살면서 오랫동안 은(殷)의 잔혹한 정치에 지배를 받고 근심스러운 나머지 이러한 시를 지었으면서도 예의와 의리 가운데 머물렀다. 대체로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그 말이 화평하기가 쉽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화평하고 고분고분하기가 어렵다.

<여분>을 지은 여인은 은의 정치가 극도로 잔혹하여 군자들이 고생하던 시기에 남편과 헤어진 지 오래고 그리움이 깊었지만, 그녀가 하는 말은 속마음의 진실되고 미더운 것으로 다만 임금을 높이고 잊사람을 가까이하는 말만 있고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없다.

이 시에서 ‘왕실(王室)’이라 말한 것은 은을 잊지 못함이고, ‘부모(父母)’라 말한 것은 주를 깊이 사랑한 것이다.

주가 천하의 삼분의 이를 얻고도 복종하여 은을 섬긴 것은 문왕의 지극한 덕이다. 이 시에서 ‘왕실여취(王室如蠶: 은 왕실이 불타는 듯하다)’, ‘부모공이(父母孔邇: 부모와 같은 문왕이 매우 가까이 계시다)’라고 한 것은, 군자로 하여금 위로는 문왕의 덕을 체득하여 은을 섬기는 데 감히 게을리하지 않기를 권고한 것이다.

(2면에 계속)

## 특기고

(23회)

#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

■ 권仁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충재 선생 67세(중종 39년:1544년) 9월에 임금이 부르심을 받고 빈청(賓廳:대신들이 군국기무를 맡아보던 비변사에서 임금과 회의를 맡아보던 관청)에 나아가 계(啓)를 올렸다. 이 때 대사헌 정순봉(鄭純朋)이 아뢰기를 “대운(大尹: 인종 의숙인 윤임 등) ‘소윤(小尹, 명종 의숙인 윤원로, 윤원형 등)’이 있다는 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중종실록 104권, 39년:1544년 9월 29일 1번째 기사)라고 하여 임금이 마음에 의혹이 생기게 하였다.

이에 모든 대신들을 불러들이고 비망기(備忘記: 임금이 명령을 적어 승지에 게 전하는 문서)를 내려 “두 윤(尹)이 서로 봉당(朋黨)을 이루고 한쪽은 세자(위의 인종)를 위하고 한쪽은 (경원)대군(위의 명종)을 위한다고 하니 이는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다. 국가를 어지럽히는 그 죄가 어찌 중하지 않겠느냐. 윤임은 마땅히 귀양 보내고, 윤원형은 파직시키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충재 선생은 모든 대신들과 연명하여 계를 올려 아뢰기를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이 간교한 입에서 나와 국가를 어지럽히려려고 합니다. 오직 진하게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조용히 진압하시어 저 간교한 사람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11월 15일 중종대왕이 승하하였다. 16일 충재 선생이 대제학 성세창(成世昌, 1481-1548)과 이조판서 신광한(申光漢)과 함께 중묘행장찬술정당상(中廟行狀撰述廳堂上)이 되었다. 18일에 빈전도감(賓殿監)이 되었다. 12월에 의정부 좌참찬 겸 지경연사가 되었다.

인종 원년(1545년:을사년) 충재 선생 68세 때 정월에 대행왕(大行王: 임금이 승하한 후에 시호를 올리기 전까지 부르는 존칭으로 곧 중종)의 묘호(廟號)를 올리는 일로 인종은 “대행왕께서 혼란한 나라를 바로잡은 공적(공 ‘중종 반정’)이 있었다고 하며 묘호에 ‘종(宗)’자를 올리려고 하신데” 대해, 충재 선생은 여러 대신들과 함께 “공적이 없었던 임금은 ‘조’라 하고, 덕이 없었던 임금은 ‘종(宗)’이라 합니다. 대행왕께서는 국가를 중흥시킨 일은 바로 은(殷)나라 제9대 중종(中宗: 태무(太王)의 고사와 서로 비슷하므로 ‘종’으로 일컫는 것이 합당하고, 남송(南宋) 대 우무(尤袤)가 고종(高宗: 조구(趙構)의 묘호를 정할 때의 ‘조’라고 일컫지 않았던 사실을 인용하여 이를 증명하자” 인종 임금이 윤허하였다. 중종(中宗, 1489년-1544년, 재위: 1500년-1544년)은 조선의 제11대 왕이다. 휘는 역(曆), 자는 낙천(樂天). 사후 시호는 중

중공희휘문소후임성효대왕(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이다. 성종의 차남으로 정현왕후 소생이다.

윤 정월에 충재 선생은 의정부 좌참찬 겸 지경연지의금부사에 임명되었다. 이 때 남해 앞 바다에 괴선박이 나타나서 정략히 판단하시고 조용히 진압하시어 저 간교한 사람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난색을 보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사헌부 등에서 “권벌이 국사를 염려하고 군사기밀(軍事機密)과 국방(國防)에 대해 적중한 것이으니 그의 의견대로 윤허하여 주소시”라고 간청하여 임금이 그 말을 따랐다.

충재 선생은 일찍이 36세 때부터 병조좌랑, 56세 때 3월에 용양위(龍驤衛) 부호군(副護軍), 60세 때 11월에 충무위(忠武衛) 상호군(上護軍), 61세 때 2월에 경상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8월과 9월에 형조참판 겸 오위도총부 부총판, 62세 때 2월에 병조참판, 6월에 한성부판윤 7월에 지중추부사 63세 4월에 지경연사 겸 오위도총부 도총판 5월에 한성부판윤 겸 지춘추판사 12월에 지중추부사 겸 도총판 세자좌빈관, 64세 때 5월과 6월에 예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68세 때 윤 정월에 의정부 좌참찬 겸 지경연 지의금부사, 5월에 의정부 우찬성 겸 의금부사, 7월에 삼공과 함께 원상(院相) 8월에 병조판서 등의 역임한 벼슬의 명칭을 보아도 선생의 군국기무와 국방, 즉 출장임상(出將入相)과 문무겸전(文武兼全)한 면이 추천선거(推薦選擧)된 것이라고 본다. 선생은 당시에 그의 경륜과 경제사상이 탁월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그해 4월에 경연에서 “서경書經” ‘무일無逸’편을 강의한 다음, 기묘사화 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명현(名賢)들의 원통함을 풀어주도록 청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道山學叢書

# 十七世紀의 政治社會的 狀況과

## 晩悔·炭翁의 歷史的 位相

17세기 정치사회적 상황

민회 탄옹 역사적 위상

李佑成 (성균관대 명예교수)

(지난호에 이어)

## 論道山之學

1. 仁政德治의 ‘王道’를 주장함

## II. 이기론

두 번째로는 권씨 부자의 우주론에서

‘理’ 太極 ‘道’가 모두 ‘天道’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으로 이 ‘天’을 또한 본체의 ‘理’ 혹은 ‘太極’으로 한 것이다. 권득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에서 그는 우주본체가 되는 ‘天’이 오히려 “漠然空虛” “無物”이 아니라 “以理爲物” “以民心爲耳目”, “天無心, 以天下之爲心”, 을 강조하였으니 이것은 곧 절대

적인 ‘天理’의 숭고한 의지에 보통의 민중내용을 더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정치론과 서로 호응하는 것으로 그 사상중의 민주적인 색채를 표시한 것이다. 세 번째로 권씨 부자의 우주론 가운데 ‘二五之氣’의 형이하학 현실세계에 대한 묘사는 오히려 소박한 유물론과 변증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권씨 부자의 “二五之氣”는 陰陽 ‘二氣’와 수화목금토의 ‘五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들은 주자의 관철에 찬동하여 ‘二五之氣’를 형이하의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재라고 인식하고 ‘氣也者, 形而下之氣也, 生物之具也’ (‘朱文公文集’ 卷50, ‘答黃道夫’)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또한 형이상의 ‘理(太極)’의 주재하에 형이하의 현실 세계의 천지 인류만

물 및 사시 변화의 모든 변화과정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위에서 말한 것에 의하면 권씨 부자가 朱子와 李滉선생 등의 동방성리학의 우주본체론에 관한 학설을 계승하였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들은 하나의 ‘理’ (혹 太極) → ‘氣’ (陰陽) → ‘五行’ (水火木金土) → 사람과 천지 만물로의 우주 생성의 법칙을 만들어 냈다 우주 만물의 위에 일체를 주관하는 ‘理’ (태극)를 두었다 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 정신본체는 오히려 우주만물을 낳는 본원이며 그 존재 이유의 근거이다. 그러나 그들은 형이하학적 현실세계에 대해서 논술을 진행시킬 때 물질의 ‘二五之氣’ (음양오행)의 객관적 존재를

충분히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주 인류 만물의 생성에서 일년 사계의 교체가 모두 ‘二五之氣’의 기에서 말미암아 변하여 형성된 것임을 지적하였고, 계속해서 ‘태극’이 움직여서 음양을 낳고 ‘變變陰陰’하여 수화목금토를 낳음을 강조하였으며, 바로 ‘二五妙合交感’에 의해 마침내 우주 인류 만물을 생성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우주론 중에는 소박한 유물론과 변증법의 합리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네 번째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주 인류 만물이 모두 ‘二五之氣’의 氣가 변화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權은 ‘氣’ 설의 원리를 이용해 불교의 ‘輪廻之妄’을 배척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凡人之生’은 ‘父母之氣所分’과

‘天地之氣所賦’에서 말미암은 것이지 사람이 죽은 후백이 환생(輪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天地之氣’가 부여해주는 바이나 사람이 죽은 후에는 곧 다시 ‘還輪之天地’ 할 수 없음을 “如受旌節而出使者返而歸之官”하는 것과 같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우주 인류 만물의 생성은 단지 한차례 존재하는 것이니 바로 “洪爐之火, 自熾自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有夢古人而生子者”의 미신적인 이야기를 믿지 않고 사람은 “是固天之氣所生, 而非古人之再來爲今人也”(同上)라고 단언하였다. 이것은 곧 불교의 윤회론과 환백 미신의 설을 반박하는데 유효하였고 또 무신론적인 사상경향을 갖춘 것이기도 했다. (다음호에 계속)

전국꽃배달 서비스 전문업체

## 20년전통의 농장직매

# 고송농원

♣ 도·소매 ♣ 경조화환 ♣ 조경공사  
♣ 꽃바구니 ♣ 각종화환 ♣ 관엽

서울山岳會 權赫九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183-2 고송농원 http://flowertown.kr  
TEL (02)5752-5555 FAX (02)5750-656 H.P 019-240-4242

## 세무법인 和仁

대표 / 세무사 권혁창

Mobile:010-6304-6565  
E-mail:fax21@yahoo.co.kr

◎ 세무상담, 세무신고대리, 기장대리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및 신고대리  
◎ 법인설립, 법인전환, 각종세무컨설팅

**본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427번지  
서울특별시 능수문로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동부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청곡미술장 3층 41-1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